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논문개요

언어의 주된 목표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선 걸으므로 말해진 것과 실제로 의도된 것을 연결하는 추론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Grice(1975)는 대화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과 네 가지 대화격률(four maxims of conversation)을 제안하며 대화함축의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를 통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신장하려는 목표를 가진 한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영어 원어민들의 구어체에 나타나는 대화함축의 특징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울러, 목표어와 모국어의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대화함축의 비교는 목표어 문화권의 사고방식이나 언어사용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영어와 한국어의 실제 대화상황에서 대화함축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상황과 격률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대화 함축이 형태보다는 의미의 개념이며 맥락에 크게 의존한다는 특성임을 감안하여,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크게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특별히 갈등상황에서의 비교분석은 학습자들이 실제상황에서 사회언어능력을 배양해주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어와 한국어의 영화대본에서 Grice의 네 가지 격률을 위배한 대화함축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대화수를 교환 회수(turn)로 산정하여 대화함축 대화의 개수를 의사소통의 성공여부로 가려내었다. 이를 다시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눈 후, 격률별로 분류하여 각 상황별, 격률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제 2장에서는 Grice의 대화함축 기제를 설명하는 대화 협력원칙과 네 가지 대화 격률을 고찰해보며, 청자의 새로운 해석과 추론을 요하는 대화격률 위반(flouts)의 대화함축을 실제 언어에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일상 언어를 보여주기엔 적합한 영화대본 두 편씩 선정하여 대화 격률을 위반한 대화함축을 전체 대화수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아보았고, 상황과 격률별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본 후, 비교논의를 하였다. 분석결과, 영어와 한국어 구어체에서의 대화함축 비중은 일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격률별 대화함축 발생비율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화함축 비중은 영어가 높았다. 이는 영어에서는 대화함축의 간접표현이 정중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상황별로 보았을 때, 한국어에서는 영어와는 대조적으로 갈등상황에서의 대화함축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더 높았다. 이는 대화자들의 친소관계가 낮거나, 다소 상위에 있는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비난을 하는 갈등상황의 경우, 한국인들은 대화함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격률별로 구체적인 특징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제 4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구어체에서의 대화함축에 대한 비교논의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영어는 명시적인 존대어 체계가 없지만 대화함축을 통한 정중함의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대화자와의 관계나 구체적 맥락에 따른 공손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양국간 대화함축의 특징은 갈등상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목표언어권에서 널리 활용되고, 용인되어지는 대화함축의 관점에서 생생한 상황별 학습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구어체 대화함축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특징인 은유를 유추하는 능력은 대화함축의 추론과 활용에 연관되므로, 영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은유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언어권의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대한 이해를 돕는 장치와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5
2.1 대화함축과 대화 협력원칙	6
2.2 표준 대화함축	11
2.3 대화 격률을 위배하는 대화함축	14
2.4 대화함축의 특성	17
제3장. 영어와 한국어 구어체 대화함축 분석과 논의	21
3.1 영화 대본 분석	21
3.2 영어 구어체의 대화함축 비중	24
3.3 영어 구어체의 대화함축과 대화격률	26
3.4 한국어 구어체의 대화함축 비중	53
3.5 한국어 구어체의 대화함축과 대화격률	54
3.6 분석결과의 비교논의	71
제4장. 결론 및 제언	81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제1장 서론

언어의 주된 사용목적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회언어능력 이라함은 대화참가자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의 적절한 언어표현을 충분히 이해하며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많은 대화들은 언제나 직접적으로 표면 형태와 심층 의미가 1:1로 상응되지 않는다. 즉,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표현일 경우도 상당부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언어가 발화되는 특정한 그 순간에 언어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사회, 및 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화용론의 관점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논리적인 의미 전달과 이해 그리고 발화능력 뿐만 아니라, 담화의 내재적인 의미를 추론하여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문자적 의미 외에도 숨어 있는 많은 의미, 즉 전형적인 함축(implicature)을 통해서 의사전달이 될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언어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다.

이러한 함축을 설명하기 위하여 Grice(1975)는 대화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과 그 하위를 구성하고 있는 대화 격률들(the maxims of conversation)을 제시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 대화 격률을 준수하거나 위배함으로써 말해진 것(what is said) 이상의 의미, 즉 발화에 내포된 함축을 생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우선 Grice의 대화 협력원칙과 대화함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그런 후, 실제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의 일상대화에서 대화함축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와 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Grice가 제안한 대화 협력원칙과 네 가지 격률을 준거로 하여 양국의 구어체에서의 대화함축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우선, 영어와 한국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 협력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대화 격률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각국의 구어체를 잘 나타내는 영화대

본을 선정할 것이다. 이에 전체 대본에서의 대화 교환 횟수(turn)를 통하여 대화 함축의 비중이 전체대화중 어느 정도인지 알아 낸 후, 이를 또한 각 격률별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할 것이다. 그런 후 세부적으로 각국의 대화함축의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즉, 화자가 의도적으로 대화 격률을 위반(flouts; Grice의 용어)함으로써 대화함축을 하여 청자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인 의사소통 사례들을 격률별로 발췌하여 이를 근거로 양국 원어민들의 대화함축의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에서 함축에 관한 연구는 이론 자체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실제적인 구어체 사용에서 대화함축이 어떠한 양상과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함축이론을 적용하여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rice의 대화함축 이론이 실제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언어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함축은 인간의 창조적인 언어사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각국의 대화함축 양상의 비교분석은 사회문화적인 유형의 차이와 의사소통 방식에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려 줄 것이다. 아울러 그 대화함축이 일어나는 상황을 크게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별 분석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학습자가 학습의 교재로나, 외국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흔한 상황은 갈등상황 보다는 일반상황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역점을 두지 않았던 목표언어 문화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적 대화 구도속의 대화자들의 대처방식을 대화격률이라는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와 비교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해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외국인들과의 갈등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 목표언어 문화권에서 적절하게 용인될 수 있는 대화함축의 특색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국어의 갈등상황에서 가지는 대화함축의 특색으로 일관한다면 상황이 악화될 가망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들이 어느 상황에서건 영어 대화의 대화함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제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이에 제 2장에서는 Grice의 대화 협력원칙과 대화 격률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그 대화 격률들을 의도적으로 위배한 대화 함축의 경험적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한국어와 영어의 영화대본과 분석방법을 소개하며 그 절차에 따라 영어 영화대본 2개와, 한국어 영화대본 2개의 자료에서 발견되는 실제적인 대화함축 사례를 상황별/격률별로 분석을 한 후, 한국어와 영어 대화함축의 비교를 논의할 것이며, 제 4장에서는 본고에서 분석된 대화함축의 결론을 맺은 뒤, 비교논의를 바탕으로 영어 교육적 측면에서 제언 할 것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언어를 소리 내어 말할 줄 알고 그 언어의 구조와 의미를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학은 크게 음운론과 통사론 그리고 의미론으로 구분된다. 의미론은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학문 가운데 중심이 되며 의미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Leech, 1983)¹⁾ 그러나 의미론만이 의미 영역의 학문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의미론이 주로 문장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 의미보다는 실제로 발화된 의미를 주로 다루는 학문은 화용론으로 의미론의 영역을 더 광범위하게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²⁾

실제 담화 중에 수행되는 발화(utterance)들을 놓고 보면 문장의 의미를 진리분석을 통한 진위의 개념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말의 의미는 단어나 문장이 사용되는 배경이나 앞뒤의 상황, 화자의 의도, 전통적인 관례 등 즉 화용론적인 여러 요인에 따라서 사뭇 달라지기 때문이다.(김태자, 1987) 이러한 화용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인간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함축을 사용함으로써 내제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함축이란 어떤 문장의 발화에 직접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발화로부터 생각해 낼 수 있는 의미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이성범, 2001) 이에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대화함축을 설명하는 Grice의 대화 협력원칙(Cooperative principle)과 그 하위를 구성하고 있는 대화 격률들(the maxims of conversation)을 소개하며, 이를 근거로 대화 격률을 준수하거나 고의로 위배하는 함축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알아볼 것이다.

2.1 대화함축과 대화 협력원칙

1) 김보라(2001) 재인용

2) Saeed(1997)에 의하면 문장의미는 개별적으로 말해진 문장 그 자체의 논리적이고 개념적인(logical or conceptual meaning)이고, 발화의미는 발화가 발현된 상황과 화자와 청자의 심리상태, 그리고 발화가 이뤄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이다.

Grice(1975)는 어떤 주어진 대화적 상황에서 어느 하나의 발화는, 그 발화자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literal meaning)인 'what is said'와 그 발화 자체의 의미를 바탕으로 대화적 상황에 적절하게 도출된 함축의미인 'what is implicated'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원만한 대화, 즉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입장 모두에서 지켜야할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하였다. 즉, 통상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가정된 보통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의 대화는 협력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Grice는 이러한 대화협력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지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 원칙과 그 격률은 다음과 같다.(Grice 1975:45-46)

(1) The Cooperative Principle.

Make your conversational contribution such as is required, at the stage at which it occurs, by the accepted purposes or direction of the talk exchange in which you are engaged.

(2) Maxims of Conversation

The maxim of Quality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 specially:

- (i)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 (ii)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The maxim of Quantity

(i)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

(ii)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The maxim of Relation

Be relevant.

The maxim of Manner

Be perspicuous, and specially:

- (i)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 (ii) Avoid ambiguity.
- (iii) Be brief.
- (iv) Be orderly.

위에서 질(quality)의 격률은 화자가 사실로 여기는, 충분한 증거의 것만 말하라는 것이며, 양(quantity)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것 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관련성(relevance)의 격률은 제공되는 정보가 진행되는 대화와 관련성이 있어야 동문서답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도(manner)의 격률은 제공되는 정보를 애매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며 명료하게 전달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언제나 이런 격률에 의거해 마치 구문의 규칙처럼 지켜 말해야만 하는 걸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Grice도 사람들이 이 대화의 격률들을 반드시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일까? 그는 말해진 것이 겉으로는 격률을 위배한(flout) 것처럼 보이나 인간의 정신 속에서 행해지는 함축의 차원에서는 대화 협력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깨닫는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inference)을 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해석이 그가 제시한 ‘대화함축’이라는 개념이다.

다음의 예시로서 대화함축의 전형을 살펴보자.

(3) A: Where's Bill?

B: There's a yellow VW outside Sue's house.

(Levinson, 1983: 102)

여기서 발화 자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본 후, Grice가 제시한 격률에 준거하여 평가해본다면, B의 대답은 적어도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 둘 다를 위배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rice에 따르면 B의 발화는 보다 깊은 차원에서 A의 질문에 상호협력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려 한다. 즉, 대답을 들은 A는 격률에 맞지 않은 발화를 들은 후 곧 Bill의 위치와 노란 VW의 위치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Bill이 노란 VW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을 하게 되며, 결국 Bill은 Sue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추론과정이 바로 Grice의 대화함축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과정이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화함축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특정한 상황과 대화의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진 배경 지식과 같은 문맥에 의존하는 추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Mey 1993: 102)

이러한 추론 과정에 대하여 Leech(1989)가 설명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4가지 격률을 인식하는 청자는 대화 협력원칙에 맞지 않는 해석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고 새로운 또 다른 가능성 있는 해석을 찾아서 그것이 대화 협력원칙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만일 맞게 되면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a. <Formulating> the most likely available hypothesis.

↓ b. <Testing> it, and, if it fails.

↓ c. <Formulating> the next most likely available hypothesis.

(Leech, 1989: 31)

통상적으로 함축이란 용어는 많은 경우 앞서 설명된 Grice가 제시한 대화함축을 의미하지만 Grice는 대화 격률들에 의거되어 추론되는 대화함축 이외에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인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도 제시하였다.

Gazdar(1979)는 고정함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Grice claimed that there were two types of implicature: conventional and conversational. The former arise solely because of conventional feature of the words employed in an utterance..."

(Gazdar, 1979:38)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Gazdar(1979)와 이성범(2001)이 제시한 다음의 예문을 보자.

- (4) a. Mary got pregnant and John was pleased.
- b. Mary got pregnant but John was pleased.

(Gazdar, 1979:38)

- (5) a. 미나가 투표하였다.
- b. 미나도 투표하였다.

(이성범, 2001)

(4b)의 접속사 ‘but’은 접속된 두 문장이 참일 때만 전체 문장이 참이 되게 해준다는 점에서 (4a)의 ‘and’와 똑같은 진리 조건을 갖는다. 또한 두 문장 다 Mary의 임신사실과 이로 인한 John의 심정을 알려주고 있지만, (4b)에서는 ‘but’이라는 특정 어휘가 가지는 ‘반대/대조’나 ‘기대하지 못했던 점’과 같은 고정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청자는 (4b)를 들었을 때, (4a)와는 다르게 ‘Mary의 임신이 어떠한 상황적 제약으로 인하여 주위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처지였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5)에서는 우리말에서의 고정함축이 제시되고 있다. 청자가 우리말 조사 ‘도’가 있는 (5b)를 들었을 때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미나가 평소에 투표를 할 경향이 적은 사람이었다.’ 내지는 ‘미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투표를 하였다’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말 접속사 ‘도’가 가지는 고정함축인 것이다.

요컨대, Grice가 제시한 함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문장에 쓰인 특정 어휘의 고정적 의미로 인하여 얻어지는 함축인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이며, 두 번째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발화 맥락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대화의 원칙 하에 문장 이면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다.

이러한 대화 함축은 대화 격률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3)의 경우처럼 격률을 어길 때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격률

을 지킬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 다음 절에서는 대화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생기는 추론인 표준 대화함축(standard implicature)과 대화의 목적을 위해서 고의로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flouts; Grice의 용어)하여 생기는 대화함축을 살펴보자.

2.2 표준 대화함축

표준 대화함축은 대화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추론되는 대화함축 의미이다. 이러한 표준 대화함축은 합리적인 대화자로 가정된 화자와 청자의 깊은 추론을 요하지 않는 흔히 주고받는 발화 속에서의 함축을 설명해줄 수 있다. 다음에서 각각 격률 별로 살펴보겠다.

(6) John has two PhDs.

+ >I believe he has, and have adequate evidence that he has.

(7) ?? John has two PhDs but I don't believe he has.

(Levinson, 1983:105)

위의 문장 (6)은 질의 격률을 준수하는 경우로써,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언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믿거나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6)은 표준 대화함축을 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7)와 같은 발화는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음에서 양의 격률을 준수하는 경우를 보겠다.

(8) Nigel has fourteen children.

+ >Nigel has only fourteen children.

(9) The flag is white.

+ >The flag is only white.

(Levinson, 1983:106)

위 (8)에서 Nigel이 실제로 14명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비록 그 사실이 (8)

의 진실과 부합되지만, 요구되는 만큼 말하라는 양의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20명이나 30명의 자녀가 아닌 오직 14명만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9)에서 화자가 언급하는 깃발은 다른 색이 없는 오직 흰색의 깃발이며, 다른 색상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양만 제시하라는 양의 격률을 지킨 예이다. 다음에서 관련성의 격률을 준수하는 경우를 보겠다.

(10) a. Pass the salt.

+ >Pass the salt now.

b. A; Can you tell me the time?

B; Well, the milkman has come.

(Levinson, 1983:97)

(10a)의 명령문 발화는 과거나 미래에 관련될 수 없고 현재 말하고 있는 시점에 소금을 전해 달라는 것으로서 현재의 시점과 관련성이 있다는 뜻이다. (10b)에서 B의 대답이 A의 질문에 관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한해서 만이 A의 질문에 부분적이거나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A는 B가 그 시간이 적어도 우유 배달부가 보통 왔다간 시간 이후임을 알려 주고자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의 (11)의 두 예문은 태도의 격률이 준수된다는 가정 하에서 추론되는 함축의 경우를 그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생기는 함축의 경우와 대조시키며 설명될 수 있다.

(11) a. Open the door.

b. Walk up to the door, turn the door handle clockwise as far as it will go, and then pull gently towards you.

(Levinson, 1983:108)

(11a)는 간결히 말함으로써 태도의 격률을 준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단순히 명령의 의도를 달성하는 사례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 (11b)처럼 말할 충분한 이유가 제공되는 상황이라면 태도의 격률을 위배한 (11b)가 발화될 것이고 이는

문을 여는데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것을 지시하기 위함이라는 대화함축이 생성되는 것이다.

2.3 대화 격률을 위배하는 대화함축

지금까지 살펴본 고정함축이나 표준 대화함축은 대화의 발언에서 일어나는 함축 중에서 화용론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한 발화를 하여, 청자로 하여금 그 속뜻을 추론하게끔 만들었다면 이러한 대화함축이야말로 대화 협력원칙의 강점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2) A; What on earth has happened to the roast beef?

B; The dog is looking very happy.

(Levinson, 1983: 126)

(12)에서 A는 구운 쇠고기가 없어짐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B에게 질문한다. 이에 B의 응답은 질, 양, 관련성, 태도의 네 가지 격률 모두를 위배하고 있지만 B가 대화에 기여하는 대화 협력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쇠고기를 먹은 대상인 개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추론하게 되어 적절한 대화함축이 발생된 것이며, 결국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식이 될, 격률별로 의도적인 위배로 발생되어지는 대화함축의 실제적 예시를 살펴보겠다.

먼저 질의 격률을 고의로 위배함으로써 도출되는 함축의미를 살펴보자.

(13) A; Teheran's in Turkey, isn't it?

B; And London's in America I suppose.

(Levinson, 1983:110)

위의 대화에서 B가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발화를 한 이유는 고의로 질의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A가 가진 정보가 틀렸다는 것을 함축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4) Queen Victoria was made of iron. (Levinson, 1983:110)

여기서 화자는 Victoria여왕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있어서 여왕이 실제로 금속인 철로 된 사람이 아니므로 의도적으로 질의 격률 위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협력원칙을 따르는 청자는 발화된 정황에 따라 여왕의 견고성이나 성실성 또는 냉정함이나 융통성의 부족 등을 함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양의 격률이 위배된 예를 살펴보자.

(15) A: Where does C live?

B: Somewhere in the south of France.

(Morgan 1975: 51)

위의 예문에서 B의 대답은 A의 질문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의 격률에 위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어디 사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주소를 말해 주지 않고 프랑스의 어딘가에 산다고만 말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을 적게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 협력원칙에 가정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16) Dear Sir, Mr X's command of English is excellent, and his attendance at tutorials has been regular, yours, etc....

(Grice, 1975: 52)

위의 글을 쓴 사람은 철학과 교수로서 전공에 관계된 직업을 갖기 희망하는 그의 제자 X의 부탁으로 (16)과 같은 추천장을 쓰고 있다. 교수는 일반적인 추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정보인 제자에 대한 소개와 역량을 써줘야 하지만, 너무나 간단히 쓴 것이다. 이는 교수가 수신인으로 하여금 X가 전공에 관련된 직업에 적합한 사람이 못된다는 함축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면서 의도적으로 양의

격률을 위배한 발화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관련성의 격률을 고의로 위배함으로써도 함축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7) A; I do think Mrs. Jenkins is an old windbag, don't you?

B; Huh, lovely weather for March, isn't it?

(Levinson, 1983:111)

A는 Mrs. Jenkins에 대한 비평적 발화를 하며, B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B는 관련성 없는 발화를 함으로써 대화의 화제를 돌리는 말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녀에 대한 비평을 들으면 감정이 상할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함축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태도의 격률을 고의로 위배함으로써 생기는 함축의미의 예이다.

(19) a. Miss X produced a series of sounds corresponding closely with the score of "Home Sweet Home".

b. Miss X sang "Home Sweet Home".

(Morgan, 1975:55)

Miss X가 노래하는 것을 본 사람이 (19b)의 표현을 쓰지 않고 (19a)를 발화한다면 그의 의도는 아마도 Miss X의 노래숨씨가 형편없다는 암시를 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 태도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4 대화함축의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대화함축에 대해서 Grice는 대화함축의 다섯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Levinson, 1983)

첫째, 대화함축은 취소될 수 있다. (cancellable). 대화함축은 대화에서의 격률이나 협력원칙에 의해서 추리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맥락 속에서 선행하는 발언의 명제가 뒤따라 올 경우 그 발언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20) The Duke of Norfolk has three mansions, and in fact more.

(Levinson 1983: 129)

(20)의 예문에서 and 이전까지의 문장에서 함축된 의미는 ‘저택을 세 개 가지고 있다’이다. 그러나 접속사 and뒤에 따라오는 in fact, more라고 부가적인 의미가 덧붙여져서 앞서 발화한 명제의 함의가 화용론적으로 취소된다.

둘째, 대화함축은 비분리성(non detachability)의 특성이 있다. Grice는 대화함축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져도 그 함축된 의미는 지속되고 의미의 변화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대화함축이 발생하는 맥락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의미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1) a. John's genius.

b. John's an idiot.

c. John's metal prodigy.

d. John's an exceptionally clever human being.

e. John's an enormous intellect.

f. John's a big brain.

(Levinson, 1983:117)

위의 (21b)가 (21a)의 반어적인 대화함축이라면, 동일한 맥락이 유지되는 한 (21a)를 (21c)~(21f)와 바꾸어 써도 (21b)와 분리되지 않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셋째, 대화함축은 계산(예측)가능성(calculable)이 있다. 대화함축은 앞의 예문들이 함축이 되어지고 있는 맥락과 배경지식을 참조하면서 대화격률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대화함축은 비고정적(non-conventional)이다. 즉, 발화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어학적으로 고정된 의미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함축은 불확정적(indeterminacy)이다. 특정맥락 내에서 어떤 발화가 지니는 대화함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22) John's machine. (Levinson 1983:118)

(22)에서 machine은 John에 대한 화자와 관련된 특정맥락에 따라 다양한 함축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입장에서 발화되었다면 부정함이나 냉정함, 긍정적 평가의 분위기 속에서는 유능함이나 빈틈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함축은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로 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Grice의 대화함축 이론의 배경이 되는 대화 협력원칙 및 대화 격률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대화함축의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대화 격률을 준수하여 생성된 함축인 표준 대화함축과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생성되는 대화함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격률을 준수하는 경우라도 함축은 일어나지만 합리적인 청자라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색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반면, 격률을 위배한 경우에 일어나는 함축은 청자로 하여금 추론으로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다는 동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영화대본 자료에서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화함축을 그 특성을 바탕으로 추출해 내어 분석할 것이다.

제3장 영어와 한국어 구어체 대화함축 분석과 논의

3.1 영화 대본 분석

한국어와 영어 원어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한 영화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영화대본을 선정하였다. 첫째, 2007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현대물 영화대본을 골랐다. 둘째, 가장 평범한 일상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드라마 장르를 선정하였다. 셋째, 영화속 대화 참여자들을 살펴볼 때, 성별이나 나이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되도록이면 성인과 성인의 대화가 많은 영화를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대화의 상대자가 아동임을 감안한 성인이 의도적으로 아동의 대화수준에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이에 의한 대화함축 분석이 원어민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본의 내용이 빠짐없이 나와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담화사건의 배경이 비슷하도록 제한을 두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각국의 영화의 주제와 주인공들의 직업적 배경이 비슷한 영화들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선정 조건에 적합한 드라마 장르의 양국의 영화 두 편을 선정하였다. 영어 원어민들의 대화함축을 보여줄 영화 대본자료로서, *The Devil Wears Prada (2006)*, *Music and Lyrics (2007)*를 선정하였고, 한국어 대화함축을 제시해 줄 대본자료로서는, *미녀는 괴로워(2006)*, *라디오 스타(2006)*를 선정하였다. *The Devil Wears Prada*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성이 한 패션 잡지 편집장의 비서로서 입사하면서 겪게 되는 애환과 성장을 담은 영화이며, 한국영화 *미녀는 괴로워*는 거구의 몸을 가진 한 여성이 립싱크 스타의 목소리 대역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체중감량과 성형수술에 성공하여 본인이 직접 가수로 데뷔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두 영화 다 20대 중반의 여성이 한 사회나 상위조직의 고정관념에 부딪쳐서 극복해 내고 있다는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Music and Lyrics*와 *라디오 스타* 두 영화의 주제는 상당부분 흡사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두 영화 모두 왕년에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진 한 남성 가수가 재기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네 영화 모두 음악, 패션 등 문화예술 산업의 직업

종사자들의 이야기라는 점, 대화의 주요한 참여자들이 통상적으로 친구들, 직장 상사, 직장 선후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선정된 영화대본에서 Grice의 4가지 대화 격률(질의 격률,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한 대화함축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3.1.1 분석 방법

대화란 화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대화는 응결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화가 응결성과 응집성을 모두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대화는 필요에 따라 응결성과 응집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응집성만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화분석 시 가장 유의할 점은 응집성을 가진 대화인가 하는 점이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화의 응집성을 가진 대화를 대화 수행의 성공이라고 가정하여, 표면적으로는 대화 격률 위반을 하여 대화함축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Grice의 대화 협력원칙을 이뤄내고 있는 대화를 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러한 대화함축들을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상황별 유형화 작업을 할 것이다. 특히 갈등상황에서의 전략을 밝히는 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입장인 일반상황에 비해 대화방식이나 대화의 전략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이를 위해 대화함축을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대화 함축 빈도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대화수를 산정하였고, 이에 영화 대본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대화 수 모두를 교환(turn) 회수 단위로 세어 산출하였다. 선정된 영화대본을 자료로 Grice의 협력원칙에 준거해 어떻게 대화 함축이 나타나는지, 대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지 초점을 두어 대화함축 개수를 산정할 것이다. 이에 전체 대화 수, 대화 함축 수와 그 비율을 제시할 것이며, 대화함축을 다시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네 가지 격률 위반과 관련된 대화 함축 개수와 비율을 산정한 후 분석 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 동시에

3) John. L.(1996)에 의하면 ‘대화의 분석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대화상의 응집성(conversational coherence)에 관한 것이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응집성이란 대화에서의 연관성(connectedness)와 유의미성(meaningfulness)을 말한다. 응집적인 대화는 잘 구조화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관련된 경우도 분석하였다.

영화 대본에서 분류하여 Grice의 4가지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함에 따라 대화 함축을 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것이다. Grice(1974: 49)가 명명한 ‘의도적 위반’에 해당되는 대화 함축 즉, Grice의 4가지 대화 격률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참여한 화자와 청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의 함축된 의미를 문맥과 함께 제시할 것이며, 함축이 일어나는 부분은 볼드체로, 대화자의 이름은 A, B, C의 형태로 제시할 것이다.

3.1.2 분석의 제한점

첫째,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영화대본은 특정주제를 위하여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로서 절대적으로 한국어와 영어 원어민의 일상 언어의 사용유형을 일반화시켜 보여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화함축 경향이 실제의 경향과 반드시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 영화 대본 두 편은 그 언어의 대표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없으며 표본 자료가 될 뿐이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질 수 있겠다.

셋째,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이라는 이분적인 분류는 또 다시 구체적인 발화 상황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인지/심리적요인, 비언어적인 요인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에 다소 포괄적인 분류라는 점에 제한점이 있다.

3.2 영어 구어체의 대화함축 비중

영어 원어민들의 대화함축은 격률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대화 참여자들이 일상 언어의 사용 중에 네 가지 대화 격률을 위반하여 가지는 대화함축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겠다.

<표1> 전체 대화수중 대화함축 개수와 상황별 대화함축 개수 분석표

영화제목	상영시간	전체 대화 수	대화함축 개수	일반상황 대화함축개수	갈등상황 대화함축개수
The Devil Wears Prada	108분	381개	69개(18.1%)	41개,(59.4%)	28개,(40.6%)
Music and Lyrics	103분	341개	50개(14.6%)	26개, (52%)	24개, (48%)
소계		722개	119개(16.4%)	67개,(56.3%)	52개,(43.7%)

<표1>를 살펴보면, 선정된 두개의 영어 영화대본의 전체 대화 수는 722개이고, 대화함축 개수는 119개으로써 Grice의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비율은 전체 대화의 16.4%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함축이 발생된 상황을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상황에서 56.3%, 갈등상황에서는 43.7%로서 일반상황에서 대화함축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상황별 대화 격률 위반 대화함축 개수 분석표

영화제목	일반상황				합계	갈등상황				합계
	질	양	관련성	태도		질	양	관련성	태도	
The Devil wears...	22	11	10	5	48*	8	11	8	7	34*
Music and Lyrics	15	9	3	1	28*	9	6	8	1	24*
소계	37 (48.7%)	20 (26.3%)	13 (17.1%)	6 (7.9%)	76	17 (29.3%)	17 (29.3%)	16 (27.6%)	8 (13.8%)	58

단위: 개수 (%)

* 두 가지 이상의 대화 격률이 중복되어 위반되는 경우 모든 개수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의 <표1>의 대화함축 총 개수와 격률별 함축 개수 총합은 일치하지 않는다.

<표2>를 살펴보면, 영어 영화대본의 일반상황에서는 질의 격률,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 순으로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갈등상황에서는 질과 양의 격률이 동일한 비율로 위반되어 대화함축을 하고 있으며, 관련성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위반이 그 뒤를 이어 대화함축을 하고 있다.

3.3 영어 구어체의 대화함축과 대화 격률

이번 장에서는 영어 원어민들의 대화 중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화함축을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의사소통적 특징을 유형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대화 격률별로 어떻게 대화함축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 자료에서 실제적인 예를 제시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3.1 질의 격률 위반

본 연구의 일반상황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위배된 격률은 질의 격률이다. 이는 일반상황의 전체 대화 격률 위반의 48.7%를 차지했다. 갈등상황에서도 29.3%의 비율로서 양의 격률 위반과 함께 역시 가장 많은 비율로 위배되어 대화함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일반상황에서의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것을 살펴보겠다. 영어 원어민들이 질의 격률을 위배할 때, 발견될 수 있는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은 바로 과장법(hyperbole)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과장법은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실제보다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시켜서 말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표현을 살펴보자.

(23) I've read this millions of times.

(24) You're the only woman in my life.

<Saeed, 1997: 195>

(23)를 발화한 화자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백만 번 읽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번 읽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4)역시 상대방이 화자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두 개의 영화 대본 속에서 과장법을 사용한 예를 제시하여 보겠다.

다음의 표현을 살펴보자.

(25)

A; Who's Miranda?

B; Oh, my God. I will pretend you did not just ask me that.

She's the editor in chief of Runway, not to mention a legend.

You work a year for her, and you can get a job at any magazine you want. ①A million girls would kill for this job.

A; ②I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I'd love to be considered.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위의 대화 참여자들은 20대 중반의 두 여성으로써 초면이다. 구직을 위해 면접을 하러 온 A와 면접진행을 도와주는 선배가 될 B가 구직자인 A에게 한 ①은 의견상 질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 왜냐하면 백 만명의 여성들이 이 직업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장된 표현은 이 직업이 매우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여성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함축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담화단위로 보았을 때 이 대화함축은 이 직업을 놓치게 되면 후회할 것이라는 가벼운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발화는 상대방인 A에게 대화함축이 성공적으로 전해져 B로 하여금 ②의 대답으로써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6)

A; I hope you know that this is a very difficult job-- Mm-hmm.

for which you are totally wrong.

①And if you mess up, my head is on the chopping block.

Now, hang that up. Don't just fling it anywhere.

Okay. First of all, you and I answer the phones.

The phone must be answered every single time it rings.

Calls roll to voice mail, and she gets very upset.

②If I'm not here you are chained to that desk.

B; Well, what if I need to--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이 대화 역시 (25)의 대화와 동일한 인물들이 대화에 참여하였다 ①,②의 발화를 통해 화자인 A는 본인의 머리가 도마위에 올려진다고 말하고 있고, 청자인 B가 실제로 의자에 묶여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이 두 발화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 말하라’는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네가 일을 그르쳐 놓으면 상사에게 화를 보는 것은 바로 나이다’라는 함축, 사무실에서 잠시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된다는 함축을 과장법의 표현을 빌려 강조를 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대목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일반상황에서 질의 격률을 위반한 37개의 대화함축 중 13개의 대화함축이 표현의 특징으로써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위의 두 경우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내포한 수행력 있는 대화함축도 있고 격한 심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7)

A; Dad, how did you-- It's-- ①I'm gonna kill Mom. Dad, thank you.
Mm-hmm. It's really good to see you.-
B; You too, honey.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예(27)의 대화 장면은 사회인이 되어 고생을 하는 딸을 찾아온 아버지가 딸과 오랜만에 상봉하여 그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며 건네는 대화이다. A는 그 자리에 없는 어머니에게 고마운 심정을 토로하는 가운데 ①을 말한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으로 질의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과장하며 발화한 것이다. 이는 본인의 심리적인 감정이 북받쳐서 나오게 된 말로써 “Thank you so much, but don't do that any more. I'm your grown-up daughter.”라는 감사의 의도로써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인 B는 그런 언어적 표현에 대하여 문제시 여기지 않고 대화함축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면서 대화함축을 한 경우 그 표현상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은유법(Metaphor)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8) John is a tiger.

(29) John is ferocious or aggressive.

(Lyons, 1995: 279)

(30) A; What kind of mood did you find the boss in?

B; The lion roared.

(31) The lion's roaring is like the boss displaying anger.

(Levinson, 1983: 153)

(32) These stones have drunk a thousand years.

(Levinson, 1983: 148)

(28)의 예문에서 ‘John이 호랑이다’라는 말은 연극에서 그가 호랑이 역을 맡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사실과는 반대되므로 질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때의 의미로는 John이 사납거나 공격적인 성격이라는 의미로 (29)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30)은 ‘사장이 화낸 정도가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31)처럼 대단히 무서웠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의 (32)예문은 ‘돌이 천년이란 세월을 마셨다’라는 뜻으로써 그 돌이 오래된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원어민들의 실제적인 대화함축에서 은유법의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A; **This is her- the new me.-**

B; Hi.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33)에서 선배비서인 A는 자신이 이전에 했던 일을 하고 있는 신입비서인 B를 제 3자에게 소개하면서 “새로운 저라고 할 수 있네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이렇게 인물을 소개 할 때나, 성격을 나타낼 때, 빗댈 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34)

A: **It's-Yup, the Dragon Lady.**

B: Oh, Miranda?-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35)

A: You know what?

I just have to stick it out for a year. One year.

And then I can do what I came to New York to do.

But I can't let Miranda get to me. I won't.

B: **Easy there, tiger.**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34)은 일의 성과에만 집착하며 직장 내 부하직원을 힘들게 하는 한 성공한 여성 편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캐릭터에 대한 비난의 의도를 가지고 은유법을 쓰고 있는 경우이다. (35)은 고된 첫 직장에서 1년만 버티고 다른 직업으로 옮길 것이라고 결의를 보이는 여자친구인 A의 모습을 보며 남자친구인 B가 ‘tiger’라 지칭함으로써 은유법을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은유법의 표현은 일반상황에서 질의 격률을 위반한 37개중 14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은유법은 동일한 표현이 단 한번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The Devil Wears Prada*에서는 새로운 신입사원이 각각 다른 인물들로 하여금 ‘new Emily’ ‘new me’(Emily는 신입사원 전임자)라는 표현으로써 소개되고, 여성 편집장을 은유하는 부분에서는 'Dragon lady', 'Snow Queen'라고 표현이 되었다.

또한 *Music and Lyrics*에서는 ‘dinner’, ‘desert’가 주인공인 작곡가에 의하여 ‘명곡’ ‘하찮은 곡’이라는 뜻으로 은유되어 발화 되어 시간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작사가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원어민들이 굳이 문학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아도 될 일상생활에서의 대화함축에서도 은유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사소통의 좋은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한 표현의 특징 중 세 번째는 반어법(irony)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6) If only you knew how much I love being woken up at 4 am by a fire alarm.

(김유진, 2005)

위의 (36)는 마치 부드러운 공격처럼 느껴진다. 겉으로 보기에 전체적인 어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뜻은 “너의 알람시계 소리 때문에 잠을 방해받아 기분이 언짢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Leech(1983:144)에 따르면 반어법은 무례함을 표현하는 아주 우호적인 방법이다.

다음의 영화대본 자료의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겠다.

(37)

A; Great show, huh? They love you. they're hot for you.

B; Of course, they're also hot because so many are going through menopause.

<from the script of *Music and Lyrics*, 2007>

위의 상황은 가수 B의 매니저인 A가 B의 공연이 끝난 직후, B에게 하는 말이고, 이에 B는 나이가 많은 본인의 팬들을 보며 유머를 자아내기 위하여 그들은 전혀 ‘hot’하지 않는다는 함축을 반어법으로서 비아냥거리며 하는 말이다. 이처럼 일반상황에서의 반어법 사용은 전체 질의 격률 위배의 37개중에서 6개를 차지하

고 있다.

이번에는 영어 원어민들이 갈등상황 속에서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일으키는 대화함축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제시해 보겠다. 역시 일반상황처럼 과장법, 반어법, 은유법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우선, 총 13개의 질의 격률 위반 대화함축 중 7개가 과장법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38)

A; There's new old acts coming up all the time.

B; Tears for Fears is going on tour. There's talk of a Spice Girl reunion.

A; That's not my audience. Ricky Martin.

I'm dead. I'm dead. I'm dead. I'm finished. I'm finished.

B; No, you're not dead. I'm gonna wind up doing bar mitzvahs.

<from the script of *Music and Lyrics*, 2007>

이 상황은 80년대 팝계에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지금은 인기가 많이 식어버린 중년가수 A가 다시 재기해보라는 메니저 B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팝계에서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을 하기 위하여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 메니저인 B는 그런 A의 과장된 표현법에서 심히 낙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심정이 함축됨을 파악하여 위로를 하는 중인 것이다. 이는 A가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39)의 예를 살펴보자.

(39)

A; Oh, my God! ①**She's going to murder me!**

B; ②**What does she want you to do, call the National Guard and have her airlifted out of there?!**

A; Of course not... Could I do that?

B; Come on. Come on.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이 상황은 우천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비행기 예약을 강요하는 상사의 전화를 받은 신입비서 A가 상사의 요구사항에 불만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①을 발화하고 있으며, 역시 전화통화를 지켜보고 있던 화가 난 아버지 B도 ②처럼 과장법으로서 질의 격률을 여기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갈등상황에서는 질의 격률을 위배하면서 반어법으로서 6개, 은유법으로서 4개의 대화함축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40)

A; **Thanks. That's really helpful.**

B;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Must spit it out.

They're just lyrics.

A; "Just lyrics"?

<from the script of *Music and Lyrics*, 2007>

A는 현재 작사가로써 작사를 해야 되지만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을 하는 중이지만 작곡가인 B가 장난스럽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다. 그 소리에 방해를 느낀 A는 ‘고맙네요, 정말 도움이 되는군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작사가 B는 A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작사를 하는데 방해하지 말아 달라’는 대화함축임을 알아챈 후, ‘작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의 예는 갈등상황에서의 은유법의 예이다.

(41)

A; Like you don't make these decisions yourself.

B; You're mad because I work late all the time and I missed your birthday party.- And I'm sorry.-

A; Oh, come on. ①**What am I, four?**

You-You hate Runway and Miranda.

And you think fashion is stupid. You've made that clear.

Andy, I make port wine reductions all day.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A와 B는 연인관계이고 일 때문에 바빠지고 변한 여자친구에 불만을 느낀 남자 친구인 A는 여자친구에게 B에게 ①처럼 four라고 부른다. 이는 six라는 큰 옷의 치수에서 four라는 작은 옷의 치수로 변화한 여자친구의 모습을 빗대어 역시 옷 치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변해버린 여자친구를 의미하는 은유법으로써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함축하여 의사 소통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어 구어체에서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대화함축이 성공적으로 전해진 사례를 영화 대본 중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추출해 보았고, 그에 따른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거의 모든 대화함축이 과장법, 은유법, 반어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각 상황별로 어떠한 표현법이 어느 정도의 빈도수와 비율로 나타나는지 표로 제시해 보겠다.

<표3>영어 구어체에서 질의 격률 위배 표현법 빈도수 및 비율

	과장법	은유법	반어법	기타	질의격률 위반 합계
일반상황	13 (35.2)%	14 (37.8)%	6 (16.2)%	4(10.8)%	37
갈등상황	7 (41.2)%	4 (23.5)%	6 (35.3)%	0 (0)%	17

단위: 개수 (%)

<표3>를 살펴보면 영어 원어민들은 일반상황에서는 질의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은유법, 과장법, 반어법의 순서대로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갈등상황에서는 과장법, 반어법, 은유법의 순서대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상황에서의 은유법은 공적인 관계, 갓 만난 직장 선후배등 친밀도가 그리 높지 않은 관계를 가진 대화참여자들끼리 초면에 누군가 소개할 때, 인물을 지칭하거나 그 성격을 빗대어 말할 때 특별히 많이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영어 원어민들은 은유로 인하여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친소관계가 그리 높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표현전략으로 사용한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반어법은 본래

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암시하기에 일반상황에서보다 갈등상황에서 더욱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3.3.2 양의 격률 위반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의 양의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채 대화함축을 하는 경우는 일반상황에서 26.3%, 갈등상황에서는 29.3%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또한 각 상황별의 특징도 비슷한 양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의 특징은 자신의 기쁜 심정이나 과시, 자신의 확고한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혹은 변명이나 핑계를 대기 위하여 의사소통에 있어서 필요한 양만 제공 하라는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한 경우가 그 첫 번째라 하겠다.

일반상황에서의 다음의 한 예를 살펴보자.

(42)

A; I mean, you get coffee-and you run errands. Yet I am in charge of her schedule..her appointments and her expenses. And, um, most importantly, um... **I get to go with her to Paris for Fashion Week in the fall. I get to wear couture. I go to all the shows and all the parties. I meet all of the designers. It's divine.**

B; Okay.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이 장면은 선배비서인 A가 신입비서인 B에게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면서 자신의 일을 필요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는 본인의 업무가 편집장과 파리에 동행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곳과 관련된 옷, 쇼, 파티, 디자이너를 언급함으로써 고조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자신의 기쁜 심정을 양의 격률을 위반한 채 대화함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알아챈 B는 대화를 마무리 한다.

다음의 (43)은 양의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핑계나 변명을 하고 있다.

(43)

A; Emily.- Hi,

B; Hi. Sorry I'm late.

It's just Miranda wanted some scarves from Herm?.

And she did tell me yesterday ,but I forgot like an idiot.

And so I freaked out, of course.

A; Emily, Emily, I-I need to talk to you.

B; I called Martine at home, and she opened the shop early...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신입비서인 A가 선배비서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용건을 말하려 하는 상황이다. B가 A가 전화를 건 용건을 묻기도 전에 본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늘어놓고 있는 중이고, 이는 본인의 지각에 대한 핑계를 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갈등상황에서도 필요한 정보 이상의 대화를 하면서 양의 격렬을 무시한 채 대화합축을 하는 경우, 자연히 비난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는 대화자들의 경쟁적 대화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 편향성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44)

A; You know, the Andy I know is madly in love with Nate...

is always five minutes early...

and thinks, I don't know, Club Monaco is couture.

For the last 16 years, I've known everything about that Andy.

But this person? This "glamazon" who skulks around in corners...with some random hot fashion guy? I don't get her.

B; Lily.

A; Have fun in Paris.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A는 B의 친한 친구이고 B가 패션업에 종사하면서 변해버렸다는 비난을 필요이상의 말을 하면서 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양의 격률 특별 대화함축을 살펴본 결과 두 번째의 특징은 바로 대화참여자들이 필요이상의 양을 발화하는 이유나, 생략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을 배려하고자하는 정중함이나 공손함의 대화함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상황에서의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45)

A; So is Sophie here?

B; You know what? haven't seen her. Yeah.

A; Chris?

B; Who?

A; You know, my manager.

B; **I'm sorry.** Have fun.

<from the script of *Music and Lyrics*, 2007>

(46)

A; Oh, my God! This is the new Marc Jacobs!

This is sold out everywhere. Where did you get this?

B; **Miranda didn't want it, so-**

A; No, no, no, no, no. This bag is, like, \$1,900.

I cannot take this from you.

B; Yeah, you can.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45)의 상황은 A가 파티 장소에 들어서면서 B를 만난 후, Sophie와 자신의 메니저인 Chris가 파티에 온 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B는 Sophie를 본적이 없다고 말한 후, 연이어 A가 물어본 Chris는 아예 누군지도 모르기에 직접적으로 모른다고 해도 되지만 'I'm sorry'라는 불충분한 양의 발화로 A에게 대답을 하고 있지

만 오히려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거나, ‘본 적이 없다’고 필요한 양을 전달하는 것보다 정중함이라는 사회적 함의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46)를 보면, A는 친구인 B에게 값진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면서, B에게 그 고가의 가방을 어디서 구했는지를 물어보는 중이다. 선물을 준 B는 직접 산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기에, 말을 끝마치지 못한 채 필요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위배는 선물이 온 과정을 알고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는 B를 배려한 정중함의 표현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갈등상황에서의 양의 격률을 위반한 특정 대화함축의 예를 살펴보자.

(47)

A; A million girls would kill for this job.

B; I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I'd love to be considered.

B; ①**Andrea, Runway is a fashion magazine...**

so an interest in fashion is crucial.

A; ②**What makes you think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48)

A; ①**I don't understand why it's so difficult to confirm an appointment.**

B; ②I know. I'm so sorry, Miranda. I actually did confirm last night.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47)의 A는 패션잡지 비서직의 면접을 보러 온 상태고 B는 그런 그녀를 안내하면서 본래의 발화 의도인 ‘패션잡지사의 직원으로써 너의 패션감각은 수준이하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제보적인(informative) 양만큼 충분히 발화하지 않은

①을 말하면서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비난이라는 무례함이 아닌 다소 정중함을 갖춘 채 간접적으로 비꼬고 있는 것이다. B는 A의 대화함축을 성공적으로 전달받아 ②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8)의 예를 본다면 상사인 A는 본인의 스케줄 조정을 확정짓지 못하는 비서 B의 무능함을 꼬집어서 비꼬고자 의도적으로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①처럼 필요 충분한 양의 발화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인 B는 그런 상사의 대화함축이 자신을 향한 질책임을 인식하고 ②처럼 사과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장면이다.

요컨대 영어 원어민들이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게 되면서 대화함축을 하는 첫 번째의 특징은 일반상황에서는 기쁜 심정, 갈등상황에서는 비난의 고조된 심정을 표출하면서 필요이상의 발화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정중성이란 사회적 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래 정중성은 감사함을 나타내는 등 유쾌한 일을 말할 때 표시되지만, 타인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의견을 말할 때도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3.3 관련성의 격률 위반

사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거의 모든 발화에는 다양한 맥락과 추론을 통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Grice도 분명히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해석되는 응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1975:34)⁴⁾ 이는 Grice가 관련성의 격률을 제안할 때, 단순히 관련성이 있고 없음을 논하고 있고, 관련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제시한바가 없다는 점에서 본고의 분석절차에도 제한점이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했다고 선정하는 대화함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영화 전반의 상황과 관련 없는 인물, 사건, 사물등을 끌어들이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4) Sperber&Wilson(1986,1995)는 Grice의 대화 격률 네 가지 모두를 관련성의 문제 하나로 완전히 축소한 '관련성 이론'을 제안함으로 Grice의 대화격률보다 더 명시적이라고 주장하나, 관련성 그 자체 개념만으로 의사소통 행위라는 포괄적인 언어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Mey, 1993)

(49)

A; You coming to the concert tomorrow?

B; **Can't disappoint Lucy.**

A; Yes, yes, very important.

<from the script of *Music and Lyrics*, 2007>

(50)

A; But the thing is, it turns out there is more to Runway than just fancy purses. Look, here's an essay by Jay McInerney, a piece by Joan Didion. Even an interview with Christiane Amanpour.

B; **Looks like someone's been drinking the Kool-Aid.-**

A; What do you-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49)의 상황은 한 가수의 작곡과 작사를 맡은 A와 B의 대화내용이고 작곡가 A가 말하는 콘서트란 그들이 만들어낸 신곡을 처음 발표하는 여가수의 콘서트이다. 그러나 작사가인 B는 본인의 바램과는 반대로 노래를 변형시켜 버린 여가수에게 화난 상태이고, 작곡가인 A는 그런 가수를 이해하는 입장으로 의견이 대립되는 상태에서 A는 B에게 콘서트에 올 것이냐고 물어보는 장면이다. 여기서 B는 조카인 Lucy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가야됨을 함축하고 있다. 이 담화 사건은 영화전반의 내용을 살펴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Lucy라는 조카는 본인의 이모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수의 신곡을 작사했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처럼 보인다. 즉, concert와 Lucy와의 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영화 전반의 정황이다. 이 대화함축은 그러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는 심정을 저변에 놓고는 있지만, 그에 관련된 대화의 양을 의도적으로 줄여 정중함을 갖추면서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대화함축이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겠다.

그러나 (50)은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한 것이 명시적으로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A와 B는 애인관계이고 바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대화중이다. A는 자신이 취업하게 된 패션잡지사에 좋은 점을 말하고 있는 중에, B는 의도적으로 관련 없는 말을 함으로써 A의 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내색을 비치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듯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화함축을 살펴봄으로써, 특징을 살펴보겠다.

우선 일반상황에서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함축한 경우는 13개로서, 17.1%를 차지하며, 갈등상황에서는 16개로서, 27.6%를 차지했다. 그중 (50)처럼 화제를 전환하고 싶은 의도로 된 대화함축이 일반상황에서는 3개, 갈등상황에서는 4개가 있었다. 또한 영어 원어민들은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질의 격률위반 대화함축과 마찬가지로 은유의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상황에서는 6개, 갈등상황에서는 8개의 은유법이 나타났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51)

A: Could I get a picture too?

B: Only if you're single.

A: I've been married 16 years, **but nothing's written in stone.**

<from the script of *Music and Lyrics*, 2007>

위의 상황에서 A는 평소에 좋아하던 팝가수인 B를 만난 후,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본 후, B가 미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에 “돌에 적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답니다.”라고 의견상 관련성이 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대화함축에서 ‘stone’이란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원한,’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은유로 이해할 수 있다. 갈등상황에서의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채, 은유법의 표현을 사용한 예를 들어보겠다.

(52)

A: You know, the Andy I know is madly in love with Nate...

is always five minutes early...

and thinks, I don't know, Club Monaco is couture.

For the last 16 years, I've known everything about that Andy.

But this person? This "glamazon" who skulks around in corners...with some random hot fashion guy? I don't get her.

B; Lily.

A; Have fun in Paris.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A와 B는 친한 친구 관계로서 B의 변한 모습에 대하여 심정을 표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A의 'Club Monaco is couture'란 말은 'Club Monaco'라는 의류 브랜드가 고급 정장이라고 생각하는 너와 나를 포함한 친구 그룹의 일반적인 동의에 너는 패션 잡지사에 종사하고 난 이후 좀더 고급스러운 것을 찾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문화계급적인 대화함축을 포함한 발화를 하고 있다. 친구의 변한 모습에 대해 나열하다가 관련이 없는 패션 브랜드를 언급하고 있기에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지만 사실은 'Club Monaco'라는 패션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은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대화함축을 살펴볼 때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다른 대화 격률들과의 중복위반이 많다는 것이었다. 일반상황과 갈등상황 모두에서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위배하여 대화함축이 생기는 총 29개중에서 12개의 격률이 2개 이상의 격률위반이 생기는 경우였다. 분석결과,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대화함축 중 질의 격률과 중복 위반하는 경우는 5개, 양의 격률과 중복 위반되는 경우는 5개, 태도의 격률과 중복 위반된 경우는 2개가 있었다. 질의 격률과 중복되는 경우는 은유의 표현법을 사용할 때 중복 위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음 (53)는 질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면서 은유법을 사용한 예이다.

(53)

A; I'm sorry. don't understand.

Your heroes, the Beatles, Smokey, they would never let this happen.

B; That's a completely different thing. They were geniuses.

They wrote dinner. I write dessert.

A; No. You're better than dessert.

<from the script of *Music and Lyrics*, 2007>

A는 작사가이며, B는 작곡가이다. A가 과거에 유명한 팝 밴드들을 나열하며 그들과 B를 비교하려 하자, B는 그들이 만든 곡은 'dinner', 즉 명곡이라는 은유라고 있으며 본인의 곡은 'dessert', 즉 하찮은 곡이라는 은유를 하고 있는 중이며, A도 이 대화함축을 전달받은 동시에 함께 이 은유를 사용하여 응수하고 있다.

또한 관련성과 양의 격률 중복 위반의 경우, 만약 청자가 관련성 위배에 대한 대화함축을 전달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화자가 요구되는 이상의 정보를 발화하는 현상이라 분석할 수 있겠다.

다음은 관련성의 격률과 양의 격률이 함께 위배되어 대화함축을 한 예이다.

(54)

A; I want my fans to know the same spiritual uplift that your music gave me.

B; ①That would be lovely. I have a few tunes. It would be nice to update.

A; ②Oh, I don't live in the past, Mr. Fletcher. It was so long ago. I want you to write a new song.

B; Okay. you see-

<from the script of *Music and Lyrics*, 2007>

A는 현재 제일 인기 있는 젊은 여가수이며, 지금은 대중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왕년에 A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했던 작곡가 겸 가수인 중년 남가수인 B에게 자신의 신곡을 부탁하는 장면이다. B는 ①처럼 본인이 이미 써놓은 곡조를 최선적으로 편곡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A는 ②처럼 '나는 과거에 살지 않아요.'라는 의견상 관련되지 않는 발화를 하면서 그 발화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상의 양을 발화함으로써 거절의 수행력을 갖는 대화함축이 B에게 전

달되고 있다.

다음은 관련성의 격률과 태도의 격률이 함께 위배되어 대화함축을 한 예이다.

(55)

A; So I don't need to fetch Stephen from the airport tomorrow?

B; Well, if you speak to him and he decides to rethink the divorce...then, yes, fetch away. You're very fetching, so go fetch.

(중략...)

A; I'm so sorry, Miranda.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현재 상사인 A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상태로서 그것을 모르는 비서인 B가 일정을 체크하는 중에 상사의 남편을 공항에서 마중 나가도 되는지를 물음에 대답하는 상황이다. 이에 B는 'fetch'라는 단어의 중의적인 면을 이용하여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태도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관련성 없는 발화를 함으로써,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사례가 되겠으나,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B의 대화함축을 A는 성공적으로 받아들여 위로를 하고 있다.

3.3.4 태도의 격률 위배

영어 원어민의 일반상황에서의 태도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상황에서는 6개의 대화함축으로써 7.9%, 갈등상황에서는 8개의 대화함축으로써 13.8%의 비중으로서 두 상황에서 모두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상황에서는 '간결하게 말하라'라는 태도의 하위격률을 위배한 대화함축이 3개, '애매모호한 표현을 피하라'는 하위격률을 위배한 대화함축이 2개로 나타났고, 중의적인 표현으로 태도의 격률을 위반함이 1개로 나타났다. 갈등상황에서는 간결하게 표현하라는 하위격률 위반이 2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라는 하위격률 위반이 6개로 나타났다.

일반상황에서 발화자들은 간결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업적에 대한 과시를 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발화함으로써 불안한 심정을 표출하거나, 중의적인 표현

의 언어유희로써 심정을 표출하는 등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발화하여 대화함축을 하고 있기에 의사소통 전략의 관점에서 유형화가 어려웠다. 그러나 갈등상황에서는 특징을 추론할 수 있었다.

다음의 갈등상황에서의 실제적 예를 보자.

(56)

A; Is there some reason that my coffee isn't here?

Has she died or something?

B; No.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위의 장면은 상사인 A가 신입비서에게 커피를 제시간에 갖다놓으라는 업무를 지시했으나 커피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배비서인 B에게 ‘그녀가 죽기라도 한 것이냐’라는 말을 하는 중이다. 상사인 A는 신입비서를 핀잔하려는 의도로서 태도의 하위 격률중 ‘애매모호한 표현을 피하라’는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의 예는 태도의 하위 격률 중 ‘간결하게 말하라’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예이다.

(57)

A; Before the benefit tonight, I need to make sure...

that you're both fully prepped on the guest list.

B; But I thought that only the first assistant went to the benefit.

A; **Only when the first assistant hasn't decided to become...an incubus of viral plague.**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상사A는 선배비서와 후배비서인 B가 있는 자리에서 본래는 선배비서만 자선행사 파티에 가기로 되어있지만 그녀가 감기에 걸려서 감염의 위험성과 정신의 혼미함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가능성 때문에 예정에 없었던 후배비서인 B의 업무를 추가 지시하는 부분이고, 단순히 ‘감기 때문에 데리고 가기 어렵다’라는 말을 간결하지 않게 말함으로써 태도의 격률을 어겼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표

현을 꺼리는 A의 의사소통 전략의 도구로서 이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갈등상황에서 태도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한 경우, 대부분 발화자는 직장 내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며, 청자나 청자에 관련된 인물들에게 대립되는 의견을 내세우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로 풍자적인 효과를 위하여 애매모호하거나, 간결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3.4 한국어 구어체의 대화함축 비중

한국어 원어민들의 대화함축은 격률별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대화 참여자들이 일상 언어중 네 가지 대화 격률을 위반하여 가지는 대화함축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겠다.

<표4> 전체 대화수중 대화함축 개수와 상황별 대화함축 개수 분석표

영화제목	상영시간	전체 대화수	대화함축 개수	일반상황 대화함축개수	갈등상황 대화함축개수
미녀는 괴로워	120분	271개	39개,(14.3%)	6개,(15.4%)	33개,(84.6%)
라디오 스타	115분	420개	36개,(8.5%)	16개,(44.4%)	20개,(55.6%)
소계		691개	75개,(10.8%)	22개,(29.3%)	53개,(70.7%)

<표4>를 살펴보면, 선정된 두 개의 한국어 영화대본의 전체 대화수는 691개이고, 대화함축 개수는 75개로써 10.8%정도를 Grice의 네 가지 대화 격률을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화함축이 발생한 상황을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상황에서 29.3%, 갈등상황에서는 70.7%로서 일반상황보다 갈등상황에서 대화함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상황별 대화 격률 위반 개수 분석표

영화제목	일반상황				합계	갈등상황				합계
	질	양	관련성	태도		질	양	관련성	태도	
미녀는 괴로워	5	2	3	1	11*	9	13	10	3	35*
라디오스타	8	4	3	1	16*	11	5	5	3	24*
소계	13 (48.2)%	6 (22.2)%	6 (22.2)%	2 (7.4)%	27	20 (33.8)%	18 (30.5)%	15 (25.5)%	6 (10.2)%	59

단위: 개수 (%)

* 두 가지 이상의 대화 격률이 중복되어 위반되는 경우 모든 개수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의 <표1>의 대화함축 총 개수와 격률별 함축 개수 총합은 일치하지 않는다.

<표5>를 살펴보면, 한국어 영화대본의 일반상황에서는 질의 격률 위반으로 가장 많은 대화함축을 하였고 그 뒤를 이어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이 동일한 비율로 대화함축을 하며, 태도의 격률이 가장 낮은 비율로 위반되어 대화함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갈등상황에서는 질의 격률,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 순으로 위반되어 대화함축을 하고 있다.

3.5 한국어 구어체의 대화함축과 대화 격률

이번 장에서는 한국어 원어민들의 대화자료 중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화함축을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대화 격률별로 어떻게 대화함축이 되고 있는지를 실제적인 예를 제시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5.1 질의 격률 위반

한국어 영화대본 자료의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경

우는 일반상황에서 13개로 일반상황하의 격률위반 대화함축의 48.2%를 차지했고, 갈등상황에서는 20개로써 33.8%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영어 대화 자료와 비슷한 양상으로 과장법, 은유법, 반어법의 표현법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상황에서의 과장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58)

A; 노래 끝내고 전화 연결할게요.

B; 누군데, 장훈이 아니지?

A; 선배 팬이래요.

C; **앞으로 전화 불날거야.**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전화가 많이 올 것 이라는 말을 과장하여 대화함축을 한 경우이다. 이처럼 일반상황에서 과장법을 사용하여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한 경우는 5개로서 일반상황 질의 격률위반의 38.5%를 차지했다. 또한 은유법은 4개로서 30.7%를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59)의 예를 보자.

(59)

A; 야 곤아 너 별자리가 뭐냐?

B; 전갈자리.

A; 그래서 성질이 더럽구나. 난 물병자리.

B; **형은 술병자리야.**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A와 B는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살펴보는 중이다. A가 B의 별자리를 물어본 후, B는 A의 별자리는 술병자리라는 질의 격률을 위배한 발화를 한다. 이 발화는 B가 평소에 음주를 많이함을 나타내는 은유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고, 대화의 함축이 바로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어법으로 질의 격률을 위반한 대화함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의 (60)을 살펴보자.

(60)

A; 보내셨길래 입어봤어요.

B; 가끔씩 그렇게 입어. 난 절대 괜찮다. 특히 그런 디자인.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A는 거구의 여성이다. 그리고 그녀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석하고 있는 C에게 받은 옷이라며 입어봤다고 하나 너무 짝 낀 모습 때문에 B의 얼굴 표정으로 보아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어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일반상황에서 반어법으로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경우는 총 2개로 가장 낮은 비율의 표현법이었다.

갈등상황에서의 질의 격률 위반의 총 20개중에서, 은유는 14개로서 70%나 차지하였고, 과장법은 3개로서 15%와 반어법의 대화함축은 2개로서 10%의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의 (61)는 갈등상황에서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은유법을 사용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예이다.

(61)

A; 야야야, 너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야,,,민수가 너 때문에,,, 이런 배은 망덕한 새끼.

B; 하여간 저 서울 안가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살거예요.

A; 방송이 내일 모레야! 야 너 나 옷 벗기기로 걱정했냐? 너 재기하기 싫어?

B; 네 싫어요.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A는 방송국의 라디오 국장으로써, 한물간 가수인 B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고 지방 방송국 디제이에서 서울 방송국 디제이로 옮기라고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B와의 심한 대립으로 감정적 다툼대화가 오가는 장면이다. A가 말한 ‘옷 벗기다’는 ‘직장에서 물러나게 하다’라는 말을 은유하는 것으로써 이는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함으로써 은유법을 사용하는 장면이다.

다음의 (62)는 갈등상황에서 과장법을 사용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예이다.

(62)

A; 너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B; 전 어제 이미 죽었어요.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A는 성형외과 의사이며, B는 수술 희망자이다. A는 B가 원하는 대로 수술을 하기가 불가능하여 만류하는 중이고 B는 강한 의지로 수술의 강행을 희망한다고 피력하는 중에 의견 대립의 대화가 오고가고 있는 중이다. 이에 A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B는 어제의 충격으로 모든 생활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대화함축을 과장된 표현으로써 하는 중이다.

다음의 (63)는 갈등상황에서의 반어법을 사용하여 대화함축을 한 예이다.

(63)

A; 디제이는 서울에서 와주시고 피디는 원주에서 와주시고 방송이 아주 기대가 많이 돼, 안 그래, 박기사?

B; 예...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이 상황은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부임하게 된 피디와 디제이 둘 다 본인들의 희망으로 온 것도 아닐뿐더러, 좋지 않은 일로 쫓기다시피 오게 된 경로를 표현하고자 라디오 지국장이 반어법으로 대화 참여자들에게 말하는 중이다. 이러한 표현법들의 상황별 빈도수와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한국어 구어체에서 질의 격률 위배 표현법의 빈도수 및 비율

	과장법	은유법	반어법	기타	질의 격률 위반 합계
일반상황	5 (38.5)%	4 (30.7)%	2 (15.4)%	2(15.4)%	13
갈등상황	3 (15)%	14 (70)%	2(10)%	1 (5)%	20

단위: 개수 (%)

한국어 영화 대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경우 일반상황에서는 과장법, 은유법, 반어법의 순서대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상황에서는 은유법, 과장법, 반어법의 순서대로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한국어 원어민들은 일반상황에서는 과장법과 은유법을 주로 사용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편이지만, 갈등상황에서는 과장법이나, 반어법보다 은유법을 훨씬 더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화참여자들은 갈등대화 중에서도 다소 고조된 다툼 대화에서 은유법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4)

A; 김장훈씨 이거 생방이거든요?

B; 생까기야, 정말? 나뿐이 아니더만, 형 후배들 돈 정말 슈킹하고 싶어?

A; 이거 새파란 거를 키워놨더니 뭐라고!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대화가 이뤄지는 곳은 라디오 방송국 부스로서 A가 현재 지방 방송국 디제이를 맡게 된 첫날, 후배가수인 B에게 축하 메시지를 듣고 싶어 방송 중 전화연결을 하였으나, B는 방송중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돈을 많이 벌린 A에게 분노를 느끼며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이에 A는 '새파란 거'라는 은유법을 사용함으로써 질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장면이다.

다음의 (65)의 예를 보자.

(65)

A; 상황을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

B; 한상준이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A; 줌 각별해서. 날 대할 때 웬지..느낌이 좋아서..

B; 지랄. 남자한테 여자는 딱 세 종류뿐이야. 봐봐 (뒤쪽 벽에 소주광고 모델의 포스터를 가리키며), 예쁜 여자, 명품이지. (자신을 가리키며) 평범한 여자, 진품이고, (한나를 가리키며) 너? 바로 반품이야. 알아? 세 가지!!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A와 B는 같은 일을 하는 직장동료이자 친구로서 A가 직장의 동료에게서 호감을 받는 것 같다고 말하자, B는 A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다가 얼굴도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 생각이 착각이라고 면박을 주면서 여자를 물건으로 은유하며 대화함축을 하는 중이다.

이처럼 한국인의 질의 의도적 격률 위반 대화함축 중 갈등상황에서의 은유법의 두드러진 활용 양상은 한국인들이 격한 심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비난의 의도로서 사용하는 대화함축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써 은유법을 효과적으로 생각하여 자주 사용한다고 분석 할 수 있겠다.

3.5.2 양의 격률 위배

한국어 영화 대본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상황에서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한 비율은 22.2%이며, 갈등상황에서는 30.5%이었다. 일반상황에서 양의 격률을 일부러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경우를 다음의 예를 통해서 특징을 살펴보겠다.

(66)

A: 곧아, 오프닝 잘해야 한다. 오프닝이 미끼거든. 오프닝으로 청취자 코
를
콕 꿰야 된다. 파이팅! 릴렉스하고 파이팅! 오케이?

B: 비켜요 시간 다 됐어요.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위의 상황은 라디오 디제이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가수를 향해서 매니저인 A가 격려하려는 의도로서 본인도 긴장되는 심정을 표출하면서 필요이상으로 발화를 많이 함으로써 B로 하여금 제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7)

A; 선배님!

B; 너희들 뭐야?

A; 이스트 리버입니다

B; 이스트 뭐?

A; 이스트! 동! 리버! 강! 영월 유일의 락 밴드입니다! 선배님 저희는 락이 저주 받은 이 땅에 신중현 선생님의 뒤를 잇는 진정한 락커는 전무후무 선배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선배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세상과의 거침없는 충돌, 음주, 폭행, 대마초, 이것이야말로 카리스마의 결정체라 생각합니다.

C; 형 가자.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68)

A;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내가 그 신의 손으로 유 명한 이공학이죠 하하하 이거 이러다가 내가 노벨상 받는거 아닌가 몰라 흠..손님은 근데 어디 어디..?

B; 전신으로..

A; 전신?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67)의 예를 보면 예전에 인기가 많던 락커인 C와 그의 매니저인 B가 영월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사를 하러 들어온 영월의 락 밴드중 한 멤버가 가수인 C를 알아보면서 흥분하며 하는 말이며,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가수인 C의 전력을 구구 절절히 말함으로써 심경표출을 하고 있다. 또한 (68)의 상황은 성형외과 의사인 A가 본인의 소개를 하면서 양의 격률을 위반한 예이다. (67)나 (68)의 담화사건의 예를 단순히 흥분된 심정의 표출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상황의 양의 격률 위반 대화함축 총 6개중 3개가 (67)나 (68)의 예처럼 신분과 정체성에 대하여 칭찬이나 과시를 하는 유형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인들은 갈등상황에서는 30.5%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함으로써 일반상황보다(22.2%) 갈등상황에서 좀 더 많이 양의 격률을 위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갈등상황의 총 18개의 대화함축 중 15개가 화자와 청자의 심정이나 의견의 대립, 혹은 변명의 의도로써 화자의 발화양이 필요이상으로 많아져 갈등의 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 (69)의 예를 보자.

(69)

A: 사납금 반도 못 채웠는데 아주 죽어가는 늑한테 청산가루를 먹이는구나. 아줌마 빨리 나와. 내 아주 일년을 드리놓는다. 살다 살다 별의 별 억울한 경우를 다 당하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 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운전을 못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왜 운전을 해 왜 운전을! 이렇게 길 넓은데 왜 엄한 남의 차를 들이받고 그러는 거요! 하루전너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을..!

B: ...

<미녀는 피로워, 2006 에서>

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차도의 가장자리이며, B가 본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인 A의 차 뒤를 들이받고 B가 차에서 나오는 순간, A가 격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대화를 하는 중이다. 이처럼 한국어 원어민들은 일반상황에서 기쁨과 흥분의 심정은 자제하여 오히려 발화의 양의 조절하는 경향이 있지만, 갈등상황에서는 심정표출의 발화양이 많아짐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화해와 해결이 지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갈등상황에서도 일반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이상 발화된 내용을 살펴보자.

(70)

A: 짐 끈이 죽게 생겼어

B: 돈 없어

A: 내가 오죽하면 마누라한테 와서 이러겠냐? 야 **최곤 팬클럽 초대 회장 김순영!** 너 끈이 감방가면 네가 책임 질거야?

B: 누가 누굴 책임져?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71)

(a) A; **최곤이 아니라 최곤 할애비가 와도 안되요..**(중략) 최곤 그 친구 그렇게 할일이 없대요? 여길 가란다고 와요?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b) A; 아..형! 형! 이럴 때 보면 꼭 다른 사람 같애. **형장점이 뭐야? 끈기 아니야..왜 좋은걸 포기해요? 내가 누굴 믿고 이러는데..형,형,형,, 나 믿지? 정말 형답지 않게 왜이래?**

B; 아 이 자식 오늘 따라 유난히 형형하네. 13개월 차이 밖에 안나는데..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72)

A; 곤이가 너 반만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다.

B; 아니 왜? 김국장이 곤이 디제이 시킨다며?

A; 야 가수가 왜 디제이를 하니? ①**용필이 형이 그런 거 하는 거 봤니?** 아 니,,**네 얘기가 아니라..②너야 지금 종합예술인이잖니. 엠씨 디제이, 개그맨, 연기자 안되는 게 없잖니?** 그래서 하는 얘긴데...

B; 돈 없어.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대화 (70)는 ‘최곤’이라는 가수 매니저인 A가 그의 부인 B에게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에서 A가 부인의 정체성에 대해 정보를 의도적으로 많이 발화하여 부탁을 강조하는 장면이며, 대화 (71a)는 지방의 라디오 방송국 편성 책임자가 서울 지부의 방송국장과의 전화로 대화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에 한물간 가수를 디제이로 섭외한다는 통보에 양의 격렬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대화함축을 하는 장면이다. 대화 (71b)에서는 음악 프로듀서인 A가 신인가수의 기획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선 기획사의 회장인 B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B가 선뜻 나서지

않자 부탁하면서 발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화 (72)은 한물 간 가수의 매니저인 A가 동년배 가수인 B가 열심히 방송생활을 하는 모습을 칭찬을 하던 중에 가수가 디제이를 한다는 화제가 나온 후, ①처럼 필요이상의 말을 하는 장면이며, 그 이후 ②처럼 말하여 수습을 하는 장면이다. 이 담화사건들의 내용상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면 (70)에서는 팬클럽 초대 회장이었다는 명분, (71a)와 (71b)에서는 할아버지와 형이라는 나이상의 상위자, (72)의 ①에서는 가수라는 명분 ②에서는 B가 현재 직업상의 정체성을 일일이 나열하며 화자의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이상의 정보를 누출하는 의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대화함축이 갈등상황의 총 15개중 9개가 있었다. 이에 한국인들은 체면, 서열, 명분을 중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책임규명이나 비난의 의도로써 누군가의 체면이나 명분이나 서열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추론해 본다면, 겸손함이나 양보의 의도의 발화시에는 의도적으로 체면이나 명분이나 서열의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음으로써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정중함을 지킨다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3.5.3 관련성의 격률 위배

한국어 영화 대본 자료에서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상황에서는 6개로 22.2%, 갈등상황에서는 15개로 25.5%로 갈등상황에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았고, 일반상황에서의 2개, 갈등상황에서의 10개가 은유의 표현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은유법 대화함축 중 상당부분은 은유법이라는 공동의 특성을 보인 질의 격률과 중복되어 위반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상황에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다음 (73)을 살펴보자.

(73)

A: 곤아 너 아냐?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

서 반사해. 곤아 순영이 김밥집이 너무 잘돼서 가게를 넓힌다는데.

B; 잘됐네, 하여간 음식솜씨 하난 알아줘야 해요.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이 장면은 메니저(A)와 가수(B)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추어 온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이다. 아직 톱스타 의식에 젖은 채, 말썽만 부리는 B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다’라는 발화로 의견상 관련성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중의 인기라는 빛을 받는 대상은 스타 한명이지만 그 인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은유를 하면서 애상이 담긴 말을 하는 중이다. 이에 B는 A의 대화함축을 전달받았으나,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서투르고, A가 자기를 떠나는 걸 원치 않기에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애써 되새기지 않으려고, 단지 메니저 부인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축하한다고 덧붙이는 장면이다.

다음의 예는 갈등상황에서의 질과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면서 은유의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경우이다.

(74)

A; 넌 참 재밌는 애야. 강냉이 좀 줄여~ 너가 점점 팝콘으로 변하잖아. 나 발렌타인 30년 계속 먹고 싶거든? 아이..근데 너 때문에 다시 소주 마시게 될 거 같다. 혼자서 아주 우울하게..너 백댄서 다시 하고 싶어?

B; ①지지배가 은근히 사람 약 올리잖아.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이 장면은 음반 기획사 프로듀서인 A가 립싱크 가수인 B를 ‘너가 팝콘이 된다’, ‘발렌타인 30년’, ‘소주’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B의 언행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고, 관련성이 없는 발화의 연속으로 B를 나무라는 장면이다. 이에 B는 A의 발화를 비난의 뜻으로 받아들였으며 ①처럼 변명의 화행을 형성함으로써 대화함축이 성공적으로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 원어민의 대화 자료도 영어에서처럼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은유법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제의 전환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다음 (75)을 보자.

(75)

A: 선생님 한 폰도 빠짐없이 이자까지 쳐서 나중에 드릴게요.

(성형수술비)

B: 김 간호사 이 실장 들여보내고 여기 환자분 출입문까지 안내해 드려. 주차권 드리지 말고.

<미녀는 피로워, 2006 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성형외과이며 환자인 A가 수술비를 나중에 드리겠다고 하자, B는 A를 무시하며 수술에 관련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대화종료를 원하는 의도의 함축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련성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한국어 원어민들이 생성해내는 대화함축을 살펴보면, 일반이나 갈등상황에서 모두 은유법의 사용과 화제전환의 의도를 그 특징으로 알 수 있었다.

3.5.4. 태도의 격률

한국어 원어민 영화대본 자료에서 태도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대화함축을 봤을 때, 일반상황에서 2개로서 7.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갈등상황에서 6개가 발생함으로써 10.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반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자가 청자에게 꺼내기 힘든 제안을 하기위하여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경우가 한차례, 거짓말을 하다가 앞뒤가 안 맞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면서 불안한 심정이 표출되는 경우가 한차례 있었기에 특징을 추리기가 어려웠다. 한편 갈등상황에서는 간결하게 표현하라는 하위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빈정대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를 이루려는 대화함축이 3개,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라는 하위격률을 위반하여 경고하는 의도를 가진 대화함축 한 경우가 3개가 있었다. 다음의 예는 갈등상황에서 간결하게 말하라는 태도의 하위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이다.

(76)

A;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면?

B; 그래.

A; 거기서 반 지하에 살았니? 꼭 두부 같애. 두부.. 선댄샵 안가니? 가본 적도 없지?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A는 B의 너무 하얀 살갓에 대한 빈정거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간결하게 말하라는 태도의 하위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 다음의 (77)에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라는 태도의 하위격률을 어긴 예이다.

(77)

A; 그 20년 동안 최곤씨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B; 88년 가수왕은 최곤 혼자만 했구면. 난 가방만 들고?

A; 그래서 그런 날이 다시 올 것 같습니까?

B; 아, 오지, 온다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거야!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A는 왕년의 가수를 재기시키기 위하여 기획중인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사장이며, B는 그 가수의 오랜 매니저이다. A는 가수의 재기를 위해선 B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일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도중 B는 '나는 최곤이라는 가수의 전성기를 일구어낸 일등공신이다'라는 뜻을 함축하기 위하여 애매모호한 발화를 함으로써 A에게 응수한다. 이에 A는 B의 발화에 담긴 대화함축을 받아들여 그렇게 일할 날이 다시 올 것 같냐고 되묻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영어 원어민 대화자료의 분석처럼 한국어 원어민 대화자료에서도 갈등상황에서는 비난의 의도를 가지고 간결하지 못하거나, 애매모호한 발화를 하는 경우를 6개중 5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화함축이 발생하는 장소나 대화자를 살펴보면 공적인 일터에서의 사회적 관계나 친소관계가 약한 동년배끼리의 대립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하기도 하였다.

3.6 분석결과의 비교논의

영어와 한국어 영화 대본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대화 격률을 위배하여 대화함축을 한 유형을 표로 종합하여 비교 논의 하겠다.

<표7> 영어와 한국어의 대화 격률 위반 대화함축 발생비율비교

	총 대화수	대화함축 개수	일반상황	갈등상황
영어	722개	119개 (16.4%)	67개 (56.3%)	52개 (43.7%)
한국어	691개	75개 (10.8%)	22개 (29.3%)	53개 (70.7%)

<표>를 보면 일상언어에서 영어 담화의 전체 대화에서 대화함축 대화 비율은 16.4%를 차지하며, 한국어에서는 10.8%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언어에서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정의적 의사소통(phatic communication)이나 신속히 흘러가는 논리적인 정보전달을 하는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청자의 수행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적인 의사소통의 담화 사건에서 함축이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영어에서의 대화함축 발생비율이 한국어의 경우보다 5.6%정도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존대법 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즉 한국어 문화에서는 영어 문화와는 달리 청자와 화자의 위계에 따른 존대법이 구조적으로 정해진 채 대화가 시작되어진다. 이 존대법 자체가 사회적인 대화 함축을 이미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영어 문화에서는 격률을 활용한 간접행위를 통하여 정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에서 설명되어진 영어 텍스트 전반에서 각 격률별 위반 대화함축 예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질의 격률관련 (37)번은 반어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팬들을 향한 무례함을 우호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이며, 양의 격률 관련 예시 중에서 정중성의 함의로 설명한 일반상황의 (45), (46)과 갈등상황의 (47),(48),(49)의 예시, 또한 간접적인 반대의 의미를 내세우면서 정중성을 함의한 관련성의 격률 (54)의 예시, 태도의 격률 예시 중 (57)의 경우 모두 각각 상황에 맞는 정중성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애인관계였다가 화해하는 장면에서 서로에게 대화함축 격률을 활용하여 정중함을 표현하는 예시를 살펴보겠다.

(78)

A; I flew up to Boston while you were gone. I interviewed at the Oak Room.

B; And?

A; And you're looking at their new sous-chef. I'm moving up there in a couple weeks.-

B; That's great. Congratulations. ① I don't know what I'm gonna do without those late-night grilled cheeses, but-

A; ② I'm pretty sure they have bread in Boston. May even have Jarlsberg.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A와 B는 애인관계이며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다시금 화해를 하는 장면이며, 때마침 남자친구인 A는 새로운 직장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참이다. 함께 살았던 B는 같이 가도 될런지를 고민하면서 ①처럼 특정음식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②는 본인이 일하게 될 곳의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 두 발화를 언뜻 보면 요구되어지는 대화의 화제인 ‘계속해서 함께 살고 싶다’라는 제안, ‘함께 이사를 가자’라는 수락이라는 본래의 의사소통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을 함께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 모두 협력적으로 대화하려는 상위 원칙을 직관하고 있기에 화해의 분위기는 고양이 되며 그로 인해 서로에게 정중함을 표현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영어 원어민들은 일반상황에서의 대화함축이 갈등상황보다 12.6% 정도 우회하는 비율을 보여 일반상황에서 더 높은 반면 본 연구의 한국어 사용자들은 갈등상황에서 두 배 이상 훨씬 더 많은 대화함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함축이 화자로부터 의도되고 청자로부터 전달되기까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적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리라 본다. 이에 본고에서 선정한 영화대본의 기준이었던 성인 대화자들의 사회적 활동의 담화사건이라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인들은 공적 지인관계와의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전략으로서 우회적인 표현의 대화함축을 더욱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대화참여자들의

위계질서가 중시되는 환경 속에서 화자가 다소 상위에 있는 청자나 하위에 있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친소관계가 약한 청자에게 비난의 화행을 가지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간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대화함축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79)

A: ① 무섭다..모든게 상품이였네요? 팔 가치도 없는 강한나. 팔기 좋은 제
니... 난 상준씨 때문에,, 상준씨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되게 힘들었 는데 지
금 보니까 그럴필요 없었겠다....

B: 그만해.

A: 내가 성형수술해서 더럽게 느껴졌어요?

B: 그만하라구!

A: 그래서 피한거구나..

B: 목 잠겨.

A: 공연할거예요 잘 할거예요....이제 이런 건 더럽고 무서운거니까(녹음 실에
있는 자신의 포스터를 떼어내려 하다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을 다쳐서 피가
났고, 이에 기획사 PD가 놀라서 달려와서 휴지를 건넵 다.)

② 됐어요. 안 아파요. 이까짓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뼈도 깎고..살도 다 잘라
냈는걸..아..그때가 제일 아팠는 줄 알았는데,,,,(pause) 가슴을 찢 어놓고 휴
지로 되겠어요?

B: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79)에서 A는 이전에 매우 체중이 많이 나갔던 여성이었고, 기획사 pd인 B와 함께 코러스 작업을 했던 여성으로서 갑작스럽게 사라진 후, 성형수술로 환골탈태한 뒤 이름을 바꿔 B에게 다시 찾아왔다. 이런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을 고민해왔던 A는 B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안 후 충격을 받고 (79)과 같은 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①의 발화에서 A는 요구되어지는 이상의 발화를 함으로써 ‘...필요 없었겠다.’라는 식의 혼잣말 형태로서 우회적인 비난을 가하는 셈이고, ②에서는 ‘뼈도 깎고, 살도 잘라내었는데 아프지 않았다’는 방어적 표현으로서 심정

을 대변하고 있으며, ‘가슴을 찢어 놓는다’는 은유로서 역시 질의 격률을 위배하면서 회사의 상위자와 갈등의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80)

A; 아 일단 누드부터 찍어서 애 넘겨버리고, 그것도 약발 떨어지기 전에, 모바일 쪽은 내가 연결할테니까.

B; ①회장님 많이 늙으셨네요. 겁도 많아지시고.

A; 이런 개자식이!? 너 누가 키웠어?

B; ②그 화장품 회사 주가 누가 올려놨는지 잊으셨나 봐요. (pause) 제 보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으니 문제없고 콘서트도 문제없을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꺼니까.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80)에서 A는 연예 기획사의 회장이고, (79)의 신인여가수의 성형 전 사진을 제보 받았다는 언론에 극단적으로 대처하려고 콘서트 및 가수활동을 전면중지하기 위하여 B와 회의 중이다. 이때 B는 A의 제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①처럼 대화화제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발화를 함으로써 결국 상황에 대처하는 회장의 모습을 비난 한다. 이에 발끈한 A가 욕설을 하며 응수하자, 다시 B는 ②처럼 관련성 없는 발화로서 화제전환과 함께 위협의 화행을 생성하는 대화함축을 한다.

(81)

A; 곧이 서울 와서 방송 잘하면, 음반도 내주고, 콘서트도 하게하고 CF 도 뛰고..

B; 음반은 누가 내주고, 콘서트는 무슨 돈으로 누가 계약합니까? 음반시장에 7080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최곤씨를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죠. 최곤씨에게 걸림돌이 되시겠습니까?

A; 걸림돌?

<라디오 스타, 2006 에서>

(81)의 장면에서 A는 ‘최곤’이라는 가수의 매니저이며, B는 대형 기획사 사장으로 그 가수를 영입하려는 과정에서 한낱 매니저일 뿐인 A가 연예사업에 기획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걸림돌’이라는 은유로 A의 정체성을 국한시키고 있다.

다음은 <표8>과 <표9>를 보면서 영어와 한국어의 상황에 따른 격률별 대화함축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8>영어의 상황에 따른 격률별 대화함축

	질	양	관련성	태도
일반상황	48.7%	26.3%	17.1%	7.9%
갈등상황	29.3%	29.3%	27.6%	13.8%

<표9>한국어의 상황에 따른 격률별 대화함축

	질	양	관련성	태도
일반상황	48.2%	22.2%	22.2%	7.4%
갈등상황	33.8%	30.5%	25.4%	10.2%

<표8>와<표9>를 살펴보면, 영어와 한국어의 상황별 대화함축의 격률별 위배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은유법, 과장법, 반어법의 표현법이 주로 사용되는 질의 격률과 관련된 대화함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등상황에서는 질의 격률의 위반 대화함축이 일반상황에서보다 비교적 적은 비율로 위반되는 양상을 보이며, 대신 영어 대화함축에서는 일반상황보다 관련성의 격률 위반이 늘었으며, 한국어에서는 일반상황보다 양의 격률 위반이 늘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이는 갈등상황에서의 영어 원어민들의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은유법 사용이 높아짐으로써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은유법 사용 비율이 다소 적은부분에 대한 상쇄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⁵⁾ 즉, 영어 원어민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은유법을 비슷하게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갈등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필요이상의 말을 함으로써 대화 주도권을 잡고 자기 편향성을 가지면서 경쟁적인 대화를 하는 경향이 짙었는데, 이는 일반상황에서의 심정표출보다 두드러지게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

5) 본고의 분석결과 영어의 경우, 질의 격률을 위반하여 은유법이 생성된 비율은 일반상황에서는 38.8%였으나, 갈등상황에서는 23.5%였다.

다.

각 상황별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위반된 격률은 태도의 격률인데, 특히 일반상황에서의 태도의 격률은 일반적으로 확실히 못한 정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를 표출하는 발화가 대부분이라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영어와 한국어 모두 갈등상황에서는 일반상황보다 태도의 격률 위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이유는 청자와의 의견대립이나 비난이나 빈정거리려는 의도에 애매모호하고 간결하지 못한 발화로서 청자에게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감정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태도의 하위 격률 중 '순서대로 하라'의 위배는 어느 상황에서도 한개도 없었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의도적으로 일어나며, 의도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의 대화함축 연구에서 뚜렷이 보이는 현상중 하나가 바로 은유법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한/영 텍스트 둘 다에서 질의 격률과 관련성의 격률의 의도적 위반과 연결되어 설명되어 질 수 있는 의사소통적 수단이 은유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양국 모두 문학작품이 아닌 일상 언어에서 대화함축을 하는 많이 발견되는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과장법 표현으로 분류되었던 대화 자료들 중 일부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은유법으로 분류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82)

A; Hello, I'm brilliant.

B; No.

A; Really, Monument should be erected in my honor.

B; You didn't.

A; Oh, yes, A friend of a friend does the cover art. and she happens to have the manuscript.

<from the script of *The Devil Wears Prada*, 2006>

(82)의 발화자 B는 불가능해 보인 일을 해낸 후, A에게 자랑을 하며 질의 격률

을 의도적으로 위배하여 과장법으로 표현을 한 사례이지만 사실 이 발화의 대화 함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적’=‘monument’라는 은유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 (83)를 살펴보자.

(83)

A; 너 미쳤니 그래서 고백하겠다고 지금까지 속여 놓고? 막말로 그 거 사기야.

B;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고백해야지 상준썩 이해할거야.

A; 내가 세상에 딱 세 종류의 여자만 있다 그랬지.

B; 이쁜 여자 됐음 이제 된 거 아니야.

A; 아니 너 해당사항 없어. 성형한 건 여자가 아니라 괴물이거든.

<미녀는 괴로워, 2006 에서>

(83)의 발화자 A는 얼굴 성형을 보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을 설명하는 중에 과장법을 사용한다. 즉 자연적인 얼굴의 가학적인 변형이니 곧 아무리 미용을 위해서 성형을 했을지라도 괴물과 마찬가지로 대화함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성형한 여자’=‘괴물’이라는 은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에 관계없이 한/영 텍스트 전반의 대화함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본고 분석 자료를 토대로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근본적으로는 수사학적인 입장에서 표현의 장식으로 생각되어지는 은유를 Grice의 대화 격률이라는 화용론적인 접근으로 해석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대화함축이라는 추론 과정이 결국 언어 표현이 갖는 의미 영역확장의 한 방법인 은유의 유추능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맥과 화자와 청자의 대화 의도를 은유해석에서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어떤 발화가 은유문이 되느냐,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담화 상황과 함축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처럼 은유를 유추하는 능력배양은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학습에서 매우 중시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본고의 한/영 텍스트 비교의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면, 영어 원어민들은 상황에 관계없고 청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기쁨, 과시, 분노, 핑계, 변명 등의 심정표출을 다소 자유롭게 발화함으로써 필요이상의 제보적(informative)인 양을 발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문화의 반영이라 보인다. 한편,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된 영화대본에서 한국어 원어민들의 경우, 일반상황에서는 필요이상의 발화의 양이 자체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대로 갈등상황에서는 심정표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발화의 양이 필요이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내용상 명분이나 서열의 강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역시 한국인의 갈등상황에서 볼 수 있는 대화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존대어 표현이라는 고정적인 함축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어보다 영어 텍스트에서는 정중성이라는 사회적 함의를 가지기 위하여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화함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본고의 한/영 텍스트 비교의 태도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면, 두 언어간 비슷한 점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일반상황에서는 화자의 확신이 없는 심정표출을 위해서 모호하고, 중의적이며, 간결하지 못한 의도적인 함축을 해서 유형화가 다소 힘들었으나, 갈등상황에서는 청자에게 편잔을 주거나 빈정대기 위해서 의도적인 위배를 활용하여 대화함축을 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인간은 정신적 활동의 산물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화함축을 통하여 언어 활용의 극대화를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대화함축을 활용하는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본 연구는 이러한 대화함축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인 Grice의 대화 협력원칙과 대화 격률을 바탕으로 영어와 한국어 구어체의 대화함축을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언어사용의 유형화를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로 말해진 내용’과 ‘함축된 내용’사이의 관계를 대화격률에 따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격률 위배(혹은 활용)로 발생하는 대화함축이 언어 사용자들의 화용론적 추론 능력을 더욱 독창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에 이를 분석의 범주로서 한정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양국의 원어민들의 평범한 일상 언어가 담긴 드라마 장르의 영화 대본 두 편씩을 선정한 후, 전체 대화수를 산정함으로써 대화 함축의 비율을 제시했으며, 상황별 대화함축의 유형화를 위하여 일반상황과 갈등상황으로 분류하여, 네 가지 대화 격률에 따라 실제적인 예를 제시함으로써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양국 원어민들의 일상 언어에서 나타는 상황별 대화함축의 유형을 비교 논의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상황별, 격률별 대화함축 발생비율의 양상은 영어와 한국어가 유사하며,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위배된 질의 격률을 통하여 은유법, 과장법, 반어법의 표현법을 활용하는 현상이 보편적임을 볼 수 있었다.

둘째, 대화함축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영어가 한국어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함축이란 본질적으로 간접표현으로써 존대와 공손과 관련되므로 한국어처럼 존대법이 언어의 구조상 체계화 되지 않은 영어 문화에서는 격률을 활용한 간접행위를 통하여 정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셋째, 한국어는 일반상황보다 갈등상황에서 대화함축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위계 중심의 한국어법을 고려해 볼 때, 갈등상황에서 화자는 공적관계의 지인이나 친소관계가 적은 청자에게 빈정거림이나 비난의 화행을 가지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뜻을 간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대화함축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넷째, 영어 대화함축의 갈등상황에서는 일반상황 보다 관련성 격률활용의 비율이 큰 비율로 높아졌으며, 이는 일반상황에서 질의 격률을 활용한 은유의 대화함축이 적은 부분에 대한 상쇄역할을 함으로써 영어 원어민은 상황에 관련 없이 은유법을 자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한국어 대화함축의 갈등상황에서는 일반상황 보다 양의 격률활용 비율이 큰 비율로 높아졌으며, 이는 한국인들은 일반상황보다 갈등상황에서 심정표출로 인한 필요이상의 발화가 두드러지게 높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갈등상황에서의 대화방식의 특성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영어 대화함축은 상황에 관계없이 심정표출로 인한 필요이상의 발화가 고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문화의 반영이라 보인다.

여섯째, 양국의 대화 자료를 살펴보면 상황에 관계없이 질과 관련성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활용된 표현이 은유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처럼 은유를 유추하는 능력의 배양은 대화함축의 추론과 활용에 연관 된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가장 낮은 비율로 위배된 태도의 격률은 양국 모두 갈등상황에서 그 특성이 발견 되었는데, 이는 애매모호하고 간결하지 못한 발화로서 청자에게 우회적인 표현으로 청자의 감정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대화함축임을 알 수 있다.

여덟째, 한국어 대화함축에서 양의 격률을 위배하여 필요이상의 제보적인 발화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의 신분, 명분, 서열 등을 강조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문화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결론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영어 교육적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명시적인 존대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간접표현인 함축을 언어 구조상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간접 표현으로 정중성을 함의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미권 사회와 문화속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상황을 접할 기회가 제공된

후, 그러한 특정 상황속에서 대화참여자들의 관계나 언어 수행에 따른 공손한 표현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며, 이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양국의 상황별 대화함축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상황보다 갈등상황에서 대화방식이나 의사소통 전략이 서로 많이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갈등상황에서 영어 원어민들보다 더욱 많은 비율로 대화함축 즉 간접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요구되어지는 이상의 양의 발화를 하고 있으며, 내용상 명분이나 서열을 통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중시여기기에 이것이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해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국어의 대화함축 특색을 일관한 채로, 영어 원어민들과 갈등상황에서 대화를 할 경우, 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대화함축으로 인한 의사소통적인 문제가 더욱 고조됨이 예상되는 항목이다. 이를 대비하여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영어 원어민들과의 갈등상황에서부터 갈등이 해소되는 해결 상황까지에 대한 생생한 상황별 학습 자료와 교수법이 간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화함축의 전반적 특징이라 보이는 은유의 표현법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고 제언 하고자 한다. 본고에 전반에 걸쳐서 양국의 원어민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상생활에서 은유적인 의미로서 대화함축하는 단어들과 문장을 많이 사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은유는 원어민들의 생활이나, 역사, 문화의 관련된 표현들이 상당부분이기에, 영미권과 상대적으로 사회 문화적 차이가 많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목표로 할 때, 장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이에 영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은유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이 절실하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영어 원어민의 은유적 표현을 살펴보면, 어휘 단위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은유표현들도 있으며 문맥 단위에서 유추해야 되는 은유표현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학습자의 이해력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간단하고 개별적인 어휘단위의 학습으로부터 은유 교육의 기본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중급 이상의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회화 교육에서의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상황속에서의 역할극(role-making)을 통하여 은유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미권 생활 문화에 대한 간접 체험과 다양한 표현법에 대한 스키마 형성을 도와 줘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보라. (2001). *대화함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05). *대화원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자. (1987). *발화 분석론의 화행론적 연구*. 탑출판사.
- 박남경. (2002). *TV 드라마의 대화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미정. (1999). *대화함축과 적합성 이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숙. (1995). *영어의 대화함축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지원. (2005). *특정대화함축의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숙. (1999). *대화함축에 관한 연구*. 안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ustin, J .L. (195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azdar, G. (1979). *Pragmatics: Implicature, Presupposition and Logical Form*.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pp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John, L. (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Wadsworth Publishong Co. 김홍규 역 (1999) *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출판
- Leech, G. (1989). *The principles of pragmatics*. New York: Longman Inc.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Lyons, L. (1995). *Linguistics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y, J. L. (1993). *Pragmatics*. Oxford: Blackwell.

- Saeed J. I. (1997) *Semantics*. Cambridge, Mass: Blackwll.
- Searle, J.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 & Wilson, D (1986). Inference and implicature. In C. Travis (Ed.), *Meaning and interpretation* (pp.45-75). Oxford: Basil Blackwell.

분석자료

1. Aline Brosh McKenna. (2006). The screenplay of *The Devil Wears Prada*
2. Marc Lawrence. (2007). The screenplay of *Music and Lyrics*
3. 노혜영. (2006). *미녀는 괴로워* 영화대본
4. 최석환. (2006). *라디오 스타* 영화대본

ABSTRACT

Comparison Analysis of the Conversational Implicature between Colloquial English and Korean : Focused on General Situation and Conflict Situation

Lee, Eunsil

Major in Englis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language use is communication, thus the inference which links 'what is said' to 'what is actually meant' is essential part for natural communication. In order to explain 'what is implied' as opposed to 'what is said', Grice(1975) said that human communication is presupposed by the 'general cooperative principle' and 'the four maxims of conversation' which both speakers and hearers try to observe for successful communication. If what a speaker says appears to superficially lack any of those maxims, the hearer is expected to go to a deeper level of the utterance searching for an implicit meaning that the speaker intended to convey. So, it is crucial for language learners who aim to cultivate successful communication ability to be aware of pattern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target language. In addition, analyzing conversational implicature by comparing mother tongue with target language also helps learners understand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in target language. Thus, this thesis is to reveal occurrence ratio and pattern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actual conversation in both colloquial English and Korean according to the flouts of conversation maxims. Also,

considering implicature as contextualized meaning, I largely divided those implicature occurred into general situation and conflict situation. I specially believe analyze on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conflict situations in both languages would suggest important guide for Korean English learners who need sociolinguistic competence in real situation.

For this purpose, I firstly selected two screenplays which will properly show everyday conversation in each country, then turn-takings are counted through all the texts, and the turn-takings including conversational implicature are also counted to reveal the ratio. They are sorted according to situational categories and maxims flouted and put unde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will explain the mechanism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Specially, it shows the actual application and inference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by flouting maxims, which is the main method of this study.

The third chapter shows the ratio,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both languages' screenplays in terms of both maxims flouted and situations. As a result,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n be said usual, and it's occurrence ratio according to the maxims is generally similar in both languages. However, the overall ratio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English was higher. This indicates they use conversational implicature to express their way of politeness compared with Korean which already has explicit honorifics. In addition, when it comes to the situational category, Korean has higher tendency to have more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conflict. This can be analyzed as follows. If Korean have an competitive conversation with someone who is in higher position or less familiar with themselves, Korean would use indirect expressions like conversational implicature. Also, each implicature in flouted maxims has its own patters.

In the final chapter in this study, some implications would drawn for

Korean English learners based on those findings. First, since English has its own polite expressions using conversation implicature, Korean English learners should be taught by systemic curriculum in terms of specific context with regard to politeness. Second, since the differences in conflict situations in both languages are relatively remarkable rather than those in general situation, Korean English learners should be offered situational teaching method with regard to conflict situation. Lastly, since the ability to infer metaphors is related to the ability to infer conversational implicature, special teaching methods for metaphors should be provided for Korean English learners to better understand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context in target language.